

소설로 보는 『靑鞆』의 아이덴티티*¹⁾

— 『靑鞆小説集 第一』를 중심으로 —

朴 裕 美**

(e-mail: sabinaz@hanmail.net)

目 次

1. 시작하며
 2. ‘신여성’ 선언으로서의 『소설집』
 3. 신인의 작품이 갖는 의미
 4. 작품의 주요 메시지
 5. 마치며
-

1. 시작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최초의 여성문예지라 일컬어지는 『세이토(靑鞆)』(1911.9~1916.2)에 게재된 소설을 통해 『세이토』만의 독자성과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세이토』는 일본여성의 근대적 각성을 촉구한 페미니즘적 잡지로서 상징성을 지니며, 여성해방을 고양시킨 사상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기존의 연구 역시 사상지로서의 가치정립과 여기에 앞장선 일부 여성들의 개인사나 평론에 치우쳐 있다.¹⁾ 따라서 『세이토』의 아이덴티티를 논하는 데 있어서도 일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8216)

** 충남대학교 강사. 근현대일본문학 전공

1) 『세이토』는 “메이지(明治) 말년의 여류문학자의 총결집이며 다이쇼(大正) 여류문학의 출발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성 문학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중·상류층 여성들의 문학소녀 취향의 자기만족적 집단이었다

반적으로 평론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시 여성들의 생생한 삶과 진솔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소설이야말로 여성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글쓰기를 통해 자아를 찾고자 한 여성들 그리고 『세이토』를 비판으로 작가로 성장하고자 했던 수많은 집필자들이 『세이토』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이 남긴 문학, 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설이야말로 『세이토』의 진솔한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²⁾ 『세이토』는 햇수로 6년의 활동기간 중에 소설은 총 170회 이상(번역소설 제외) 게재되었고 두 번에 걸쳐 특집으로 「소설호(小説号)」³⁾를 구성하였으며, 1913년 2월에는 창간호부터 1912년 12월호까지 게재된 60편의 소설 중 18편을 추려 『세이토소설집 제1(靑鞆小説集 第一)』(이하 『소설집』으로 표기)을 간행하였다.

특히 『소설집』은 그 동안의 소설적 성과를 세상에 묻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세이토』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하

는 평가나 문학사에 남는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채 끝나버린 잡지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세이토』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페미니즘 시점에서 재평가하려는 시도와 함께 여성해방 사상지로 부각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창간호의 권두를 장식한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시 「부질없는 말(そぞろごと)」과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의 창간사 「태초 여성은 태양이었다(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는 대표적 여성해방 선언으로 현재까지도 주목받고 있으며 일본 여성의 근대적 각성을 촉구한 페미니즘의 효시로서 상징성을 지닌다. 이처럼 『세이토』는 ‘여성해방’을 고양시킨 사상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기존의 연구의 초점 역시 여기에 맞춰져 있다.

2) 『세이토』의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이에 대한 연구도 증가했다.

구사베 가즈코(草部和子)는 세이토사의 존재는 하나의 문학유평과 평가해도 좋지 않겠느냐며 ‘문학의 입장’에서 논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논평도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草部和子(1963. 9) 「女流作家と婦人運動」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8(13)

板垣直子(1955. 2) 「平塚らいてうと靑鞆派の文芸運動」 『明治大正文学研究』通号15

_____ (1968) 「『靑鞆』派の文学運動と婦人運動」 『明治・大正・昭和の女性文学』 桜楓社

子安美知子(1964. 6) 「最近の『靑鞆』研究」 『比較文学研究』通号8 東大比較文学会

_____ (1961. 10) 「『靑鞆』の成立—平塚らいてうを中心として」 『国語と国文学』38(10)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이외에도 최근에는 『세이토』에 대한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페미니즘 코드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세이토』를 읽다(『靑鞆』を読む)』(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編(1989), 学芸書林)와 여성사 분야의 관점으로 『세이토』와 그 시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세이토』를 배우는 사람을 위해(『靑鞆』を学ぶ人のために)』(米田佐代子外編(1999), 世界思想社)가 간행되었다. 이어 『세이토』에 참여했던 여성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세이토인물사전—110인의 군상(『靑鞆』人物事典—110人の君像)』(らいてう研究会編(2001), 大修館書店)이 간행되었다. 또한 『세이토』를 시대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하며, 근대의 문학과 젠더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 『『세이토』라는 장(『靑鞆』という場)』(飯田裕子編(2002), 森話社)으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세이토』의 본질은 문학에 있다”고 단언하며, 소설과 작가를 중심으로 풀어진 『문학으로서의 『세이토』(文学としての『靑鞆』)』(岩田ななつ(2002), 不二出版) 역시 큰 성과를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적 작품이나 일부 작가 연구에 치우쳐 그 전체적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3) 제2권4호(1912. 4)와 제4권4호(1914. 4)

는 데 있어 『세이토』가 지향하는 소설들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작가의 명성이나 작품 개개의 특성을 뛰어넘어 여성들의 문제의식과 중심사고가 집약되어 있으며 『세이토』의 여성들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설집』이야말로 소설을 통해 『세이토』의 아이덴티티를 고찰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텍스트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소설집』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이토』연구에 대한 자료로서의 활용도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평론에 치우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활용되지 못했던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자료의 보충이라는 점에서도 『소설집』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세이토』의 독자적인 가치와 의의 등 그 아이덴티티를 규명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2. ‘신여성’ 선언으로서의 『소설집』

『세이토』게재의 소설을 묶어 연 1회 정도 간행할 기획을 세운 것은 세이토의 2대 스캔들이라 일컬어지는 ‘오색주(五色の酒)’⁴⁾와 ‘요시와라견학(吉原登楼)’⁵⁾ 사건으로 『세이토』가 비난과 공격을 받았던 수난의 시기이다. 사무실과 편집자인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의 집에 투석과 협박장이 날아들었고 『세이토』여성들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가십거리로 삼았으며 가미치카 이치코(神近市子)는 세이토 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직에서 쫓겨나야 했다. 가족들로부터도 질책을 받게 되자 탈퇴하는 사원과 구독중지가 이어지면서 『세

4) 당시에는 카페, 레스토랑이 생겨나던 시기로 이들은 자주 문예잡지에 광고를 했는데, 신입사원 오타케 고키치(尾竹紅吉)는 광고를 부탁하기 위해 레스토랑 겸 바인 ‘메종코노스(メゾン 鴻の巣)’를 방문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섯 종류의 술이 비중의 차이로 섞이지 않고 각기 아름다운 색을 내는 ‘오색주’라는 칵테일을 보게 된다. 화가인 고키치는 화려한 빛깔의 칵테일에 매료되어 제2권7호의 「편집실로부터」에 이 ‘오색주’를 예찬하는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이 술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이 소문이 퍼져 “여자인 주제에 술집 출입”이라는 비난과 함께 저널리즘의 표적이 되었다.

5) 고키치의 숙부인 일본화가 오타케 지쿠하(尾竹竹坡)가 여성 문제를 연구한다면 불행한 여성의 생활을 알아야 한다며 요시와라(吉原)유곽의 견학을 제안한다. 이에 고키치와 라이초, 그리고 나카노 하쓰(中野初)는 ‘다이문지로(大文字楼)’의 유녀 에이잔(栄山)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룻밤을 그 곳에서 묵었다. 이 소문을 들은 『요로즈초호(万朝報)』 기자가 회견을 요청하자 고키치는 개방적 태도로 모든 것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여문사의 요시하라 유흥(女文士の吉原遊び)」이라는 타이틀로 1912년 7월 10일에 기사화되었다. 이어서 『고쿠민신문』이 「소위신여성」이라는 타이틀로 4회에 걸쳐 연재(7월 12일~15일)를 기획, ‘소위 신여성’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 「이런 것이 여문사라고 뽐낸다(恠じたのが女文士で威張る)」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아라키 이쿠(荒木郁)를 시작으로 라이초, 고키치, 하쓰 등의 사생활을 파헤치며 흥밋거리로 삼았다.

이토』의 수난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해방에 앞장서는 용기 있는 여성들이라는 데 공감하고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여성들에게 『세이토』는 분명 힘이 되어주었으며, 그렇기에 신여성이라는 조소와 비난에 무너지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근대적 자아를 보다 명확하게 각성시키는 유효한 힘으로 작용하였다. 여성들은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 물러서기 보다는 당당히 맞서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소설집의 발간 역시 이러한 일련의 대응 속에서 이루어졌다.

『세이토』에 대한 비난에 맞서 먼저 라이초는 『주오코론(中央公論)』에 「신여성(新しい女)」이라는 산문시풍의 짧은 글을 게재하고 강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⁶⁾ 그녀는 이 글을 통해 『세이토』에 참여한 여성들을 신여성이라고 야유하는 데 맞서 “나는 신여성이다. 적어도 진정으로 새로운 여성이 되기를 항상 바라고 노력한다”며 스스로가 신여성임을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나아가 “남성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낡은 도덕과 법률을 타파”해야 한다며 신여성이 갖춰야 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과 자세를 제시하는데, 『소설집』에 게재된 작품의 상당수가 이 선언에 호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토』 1913년 1·2월호에 「부록 신여성, 기타 여성문제에 대해(付録 新しい女、其他婦人問題に就いて)」⁷⁾를 게재하는 등 신여성문제를 특집으로 구성하고 여성의 생활과 현실과 바람에 대해 토로하며 적극적 자세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강연회⁸⁾를 개최하여 직접 대중에게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설집』의 간행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창간호부터 약 1년 남짓 『세이토』에 실린 소설 중 일부를 모은 것

- 6) 1913년 신춘, 『주오코론(中央公論)』은 「규수 15명가 일인일제(閨秀15名家一人一題)」라는 기획 아래,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 등의 작품을 게재하였는데, 여기에 라이초는 「신여성(新しい女)」이라는 제목으로 산문시풍의 짧은 글을 실었다.
- 7) 1월호에는 이와노 기요(岩野清)의 「인류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人類としての男性と女性は平等である)」, 이토 노에(伊藤野枝)의 「신여성의 길(新しい女の道)」, 가토 미도리(加藤緑)의 「신여성에 대해(新しい女に就いて)」 등이 게재되었다. 2월호에는 자유민권운동의 여성투사로 유명한 후쿠다 히데코(福田英子)의 「부인문제의 해결(婦人問題の解決)」이 게재되었는데, 『세이토』는 ‘안녕질서방해’라는 이유로 발행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 8) 세이토 강연회는 1913년 2월 15일에 도쿄 간다(神田) 청년회관에서 열렸다. 세이토사 여성으로서는 야스모치 요시(保持研)가 세이토사의 정신과 사업 및 목적을 설명하고, 이토 노에(伊藤野枝)와 이와노 기요(岩野清)가 연단에 섰으며 라이초는 폐회 인사를 담당했다. 그 외 이쿠타 조코(生田長江), 이와노 호메(岩野泡鳴), 마바 고초(馬場孤蝶) 등 남성 연사들이 ‘신여성’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 제1회 세이토 공개강연회는 입장객 약 천 명가량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3월호에는 이와노 기요의 「사상의 독립과 경제의 독립(思想の独立と経済の独立)」, 남편 이와노 호메의 「남자의 요구(男子からする要求)」, 마바 고초의 「부인을 위해(婦人のために)」 등 2월 강연내용이 부록으로 게재되었다.

입니다.

앞으로도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모아 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세이토소설집 제1』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젊다기보다는 아직 어리다고 해야 할 세이토는 미래를 기약합니다. 제2, 제3, 제4, 제5 이렇게 한 권씩 늘어날 때마다 여류소설에 있어 진보의 발자취를 선명히 남기며 나아가고 싶습니다.⁹⁾

여성문학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자 하는 바람과 앞으로 더욱 성장해가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위의 인용문은 『소설집』 서문에 쓰인 라이초의 글이다. 결국 1집을 끝으로 더 이상 간행되지는 못했으나 『소설집』 간행 당시 라이초를 비롯한 『세이토』 여성들의 소설에 대한 열의는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세이토』 매 권마다 각호에 게재된 소설을 평균해 보면 제1권 4작품, 제2권 4작품, 제3권이 2작품, 제4권 3작품, 제5권 4작품, 제6권이 5작품이 되는데, 단순하게 수적으로만 살펴봐도 『세이토』에서 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여성해방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는 제3권에서 일시적으로 게재된 소설편수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폐간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소설이 그 만큼 『세이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기에 편집을 맡았던 라이초 역시 소설집을 구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세이토』라는 잡지의 성격에 대해 이데 후미코(井手文子)는 복각판(復刻版) 『세이토』의 「해설·총목록·색인(解説・総目次・索引)」에서 “여성해방 지향은 전체로 보자면 일부에 지나지 않고, 여성의 심정을 그린 작품이 『세이토』의 베이스”¹⁰⁾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세이토』의 여성들 역시 소설에 대해 “자각한 젊은 여성들이 낡은 도덕이나 세속적 사상과 별이는 고투와 의식적인 사랑 그리고 삶의 목표를 잃은 채 정신적 위기에 놓인 여성의 마음 등, 그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¹¹⁾며 제4권4호의 「편집실로부터(編輯室より)」에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의 글이 지닌 가치는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는 문학적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찾으려 한 수많은 여성 집필자들이야말로 『세이토』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당시의 여성들이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과 생각

9) 靑鞆社編(1913) 『靑鞆小説集 第一』 東雲堂

10) 井手文子(1983) 『『靑鞆』解説・総目次・索引』 不二出版, p.11

11) 제4권4호 「편집실로부터(編輯室より)」

을 표현하고자 하는 바람과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준다.

흔히 『세이토』는 순수한 ‘여성문예지’로 출발했으나 ‘신여성’이라는 사회의 비난과 공격을 계기로 여성해방 사상지로 변모했다고 설명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창간 당시의 “본사는 여류문학의 발달을 도모하고, 각자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훗날 여류 천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칙(概則) 제1조의 문장이 『세이토』 3권10호에 이르러서는 ‘문학’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본사는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고”로 수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칙의 수정에 의해 『세이토』의 여성사상지로의 변모는 그 논거의 확실성을 보장받아 왔으며 이와 더불어 『세이토』에 있어서 소설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은 간과되곤 했다. 그러나 『세이토』에 대한 세론의 비난에 맞서는 적극적인 대응 속에서 이처럼 『소설집』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평가와는 달리 『세이토』 여성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데 소설이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세이토』 여성들에게 쏟아진 신여성이라는 조소와 비난은 오히려 근대적 자아를 각성시키는 유효한 힘으로 작용하여 진정으로 신여성이 되고자 하는 의식적 목표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여론의 공격이야말로 『세이토』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²⁾ 그리고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의 벽과 맞서고자 했던 여성들의 문제의식과 사고를 ‘소설’이라는 표현형식을 통해 표출시킨 것이 바로 『소설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집』은 『세이토』의 여성들이 신여성이며 앞으로도 신여성으로 살아갈 것을 밝힌 세이토의 당당한 선언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3. 신인의 작품이 갖는 의미

『소설집』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신인의 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당시의 존재감이나 세상의 평판으로 봤을 때 하세가와 시구레(長谷川時雨)나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의 작품이 수록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¹³⁾고 할 정도로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기성작가의 작품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성관계후의 남녀의 심리를 그리며 처녀성 신화에 의문을 제기한 도시코의 『생혈(生血)』은 “도시코 문학의 중심 테마인 남녀상극이 최초로 등장하는 작

12) 박유미(2009) 『『세이토(靑鞵)』의 여성담론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5 참조

13) 利根川 裕(2003) 『解説』 『靑鞵小説集 第一』復刻板 不二出版, p.4

품”¹⁴⁾이라고 일컬어지며 『세이토』 창간호에 실려 더욱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세이토』사상 가장 문학적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연유로 『소설집』의 선택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문 제기와 함께 편집을 맡고 있던 라이초의 개인적 기호가 반영되었을 뿐이라며 문학적 가치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분석하려는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문학적으로 미숙하다는 『세이토』의 비평에 맞서는 수단으로 도시코나 이전부터 이름이 잘 알려진 몇몇 기존 작가의 작품을 내세우는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 집필자들과 그들의 작품을 배제한 채 극히 일부 여성작가들과 작품이 『세이토』를 대표한다는 식의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세이토』의 진정한 가치를 매몰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이초가 후에 도시코에 대해 “특별한 개성을 지닌 여성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진정한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여성도 아니다”¹⁵⁾라고 평가하듯이 『세이토』가 추구했던 가치를 문장표현이나 문학적 구조 등의 완성도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도시코가 당시에 직업적으로 성공한 여성작가의 한 사람이며 그녀의 문학이 현재의 시점에서 높게 평가된다는 사실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이토』가 추구하는 문학적 가치나 이념이 도시코의 그것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점이 『세이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기존부터 활동하던 유명 작가의 작품이 배제되었다는 점이야말로 『세이토』가 기성작가나 문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바를 소신껏 구현하고자 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세이토』의 여성들 역시 소설에 대해 “자각한 젊은 여성들이 낡은 도덕이나 세속적 사상과 벌이는 고투와 의식적인 사랑 그리고 삶의 목표를 잃은 채 정신적 위기에 놓인 여성의 마음 등, 그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¹⁶⁾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이토』의 가치는 “남성이 배제된 장에서 여성이 여성을 향해 말하”¹⁷⁾는 공간이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대에 간행된 다른 일반적인 여성투고지가 남성 편집자에 의한 선택과 편집이었던 데 반해 여성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세이토』 안에는 남성의 시선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여성의 실생활과 거기에 내재된 문제들이 생생하게

14) 今井泰子(1992) 『外編短編 女性文学 近代』 桜楓社, p.51

15) 앞의 글 13) p.5

16) 『編輯室より』 4(4) 『靑鞆』 復刻版(1983) 不二出版

17) 根岸泰子(2003. 11) 『『靑鞆』における「私的領域」の意味』 『国語と国文学』80(11) 至文堂, p.79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토』는 다양한 문학사조가 공존하고 여러 잡지가 난립하여 삼호잡지(三号雜誌)¹⁸⁾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잡지의 생명이 짧았던 시기에 5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원이나 찬조원 등으로 참가한 여성들은 90여명에 달하고 집필자는 150명을 넘을”¹⁹⁾ 정도로 수많은 여성들이 문학가·비평가로서의 재질을 닦을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이처럼 『세이토』는 일본 각지의 무명 여성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발표의 장으로 큰 의미를 지니며 이들 여성들의 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존속할 수 있었다. 이는 문학적 수준의 차원을 넘어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찾으려 한 수많은 여성 집필자들이야말로 『세이토』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이와타 나나쓰(岩田ななつ)는 “가토 미도리(加藤みどり), 이와노 기요(岩野清), 가미치카 이치(神近市)와 같이 세이토에서 자라고 자아에 눈뜬 새로운 여자를 그린 작가도 있다면 찬조원들과 같이 무난한 작품을 실었을 뿐인 작가도 있다”고 지적한 후에 “세이토와 동세대의 청년에게 있어서는 찬조원의 작품은 시시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²⁰⁾고 평하고 있다. 즉, “찬조원으로 대표되는 개별적으로 지명도 높은 작가가 아니라 이 잡지를 통해 성장한 그 외의 많은 집필자 쪽이 잡지의 성격을 드러내는 작품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²¹⁾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설집』에 게재된 열여덟 작품 중 『세이토』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신인의 작품이 전체의 반을 넘는 열 편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분명하게 뒷받침해준다.

예구사 미쓰코(江種満子)의 설명을 참조하자면 당시 여성들이 문단에 나오기 위해서는 남성작가에게 사사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남성작가의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설집』의 간행 이전에 편찬된 여성소설집인 『특집 여류작가소설집(特集女流小説拾篇)』(『中央公論』 1910)이나 『규슈소설12편(閨秀小説十二篇)』(『博文館』 1912)의 여성소설가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모두 유명 남성작가의 제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으로 여성작가에 대한 남성작가의 영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²²⁾ 그런데 『소설집』은 이와는 달리

18) 창간해서 3호 정도로 휴간이나 폐간을 하는 잡지를 가리킨다. 주로 잡지나 동인지 등 편집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용되는 말로, 독자나 자금이 확보되지 못한다든지 내부 분열 등으로 정기적인 간행을 폐지한 잡지에 대한 자조와 야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19) 露口卓也(1999) 「『青鞥』の思考」 『文化学年報』49호 同志社大学文化学会, p.361

20) 岩田ななつ(1995. 12) 「『青鞥』の文学—杉本まさおの場合」 『国文鶴見』30 (飯田祐子(1997. 12) 「『青鞥』の中心と周辺」 『名古屋近代文学研究』(通号15) 名古屋近代文学研究会, p.101에서 재인용)

21) 飯田祐子(1997. 12) 「『青鞥』の中心と周辺」 『名古屋近代文学研究』(通号15) 名古屋近代文学研究会, p.100

22) 『특집 여류작가소설집』을 예로 살펴보면, 이미 한 문파를 형성하고 있는 하세가와 시구레(長谷川時雨)뿐 아니라 열 명의 집필자 중 고가네이 기미(小金井きみ), 모리 시게(森しげ), 구니키다 하루코(国木田治子), 오카다 야치요(岡田八千代), 오구리 가즈코[小栗(加藤)箒子] 등은 가족 중에 문단

신인 작가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전체 열여덟 명의 집필자 중, 아래 표에서 어둡게 표시된 열 명이 『세이토』를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한 신인들이다.

	제 목	작 가	게재권호
1	京之助の居睡	野上弥生	2권9호
2	客	小笠原さだ	2권6호
3	女医の話	水野仙	2권9호
4	太鼓の音	小金井きみ	1권2호
5	道子	荒木郁	1권3호
6	老	尾島菊	2권4호
7	おきな	加藤寿	2권1호
8	教会と魔術と鳥と	人見直	2권8호
9	暗闘	岩野清	2권4호
10	かおり	岡田八千代	2권5호
11	人の夫	神崎恒	2권2호
12	手紙の一つ	神近市	2권9호
13	死の家	森しげ	1권1호
14	乙弥と兄	林千歳	2권4호
15	執着	加藤緑	2권4호
16	湖畔の夏	茅野雅	2권4호
17	初恋	藤岡一枝	2권12호
18	老師	木内錠	2권9호

『세이토소설집 제1』 게재 작품과 작가

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남성 작가[모리 오가이(森鷗外), 구니키다 돛포(国木田独歩),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内薫), 오구리 후요(小栗風葉)]가 있으며, 오지마 기쿠코(尾島菊子), 나가요 미치요(永代美知代),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는 남성 유력 작가[도쿠다 슈세(得田秋声),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에게 지도를 받았다. 미즈노 센코(水野仙子)는 두 가지 조건[하토리 모토하루(服部躬治),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을 모두 갖추고 있다.

江種満子(1989) 「知としての〈女〉の発見」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編 『『靑鞆』を読む』、学芸書林 p.18 참조

『소설집』에 작품이 게재된 열여덟 명의 작가들 중 오카다 야치요(岡田八千代), 오지마 기쿠(尾島菊), 가토 가즈코(加藤籌子), 미즈노 센코(水野仙子), 모리 시게(森しげ)의 다섯 명은 『특집 여류작가소설집』과 『규슈소설12편』 모두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고가네이 기미(小金井きみ)와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는 『특집 여류작가소설집』에 그리고 기우치 테(木内 錠)는 『규슈소설12편』에 작품을 게재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아라키 이쿠(荒木郁), 이와노 기요(岩野清), 오가사와라 사다(小笠原さだ), 가토 미도리(加藤みどり), 가미치카 이치(神近市), 간자키 쓰네(神崎恒), 지노 마사(茅野雅), 하야시 지요(林千歳), 히토미 나옴(人見直), 후지오카 가즈에[藤岡一枝;모즈메 가즈코(物集和子)]는 『특집 여류작가소설집』이나 『규슈소설12편』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세이토』를 통해 본격적으로 소설 집필을 하게 된 신인들이다.

뿐만 아니라 미즈노 센코, 모리 시게, 가토 가즈코 등 이전부터 활동하던 작가들 역시 『세이토』에 대해서는 “기성문단에 어울리는 얼굴과는 다른 표정으로 임하고 있다”²³⁾는 기술에서 엿보이듯이, 기성문단에 게재된 비교적 무난한 작품들과는 달리 남녀성차에 대한 문제를 여과 없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자유로운 문학 활동을 억압하는 당시의 구조 속에서도 여성작가들이 남성작가의 그늘 밖으로 나와 “자연주의나 탐미파와 같은 문단길드의 언어로는 말하기 어려운 여성의 현실에 대한 동시대 여성으로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²⁴⁾을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여성문예잡지로서의 『세이토』만의 특징과 의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4. 작품의 주요 메시지

『세이토』의 소설은 흔히 무슨 파라고 규정할 수 없는 작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나 그 안에는 분명 여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메시지가 보인다. 그 반복되는 메시지가야말로 『세이토』라는 잡지의 특징과 방향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에게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살려 천직을 완수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직업에 대한 의식을 담은 작품들을 『소설집』의 하나의 특징

23) 江種満子(1989) 「知としての<女>の発見」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編 『『青鞥』を読む』、学芸書林 p.21

24) 위의 글 p.21

으로 들 수 있다.

가토 미도리의 「집착(執着)」에는 ‘문학’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에 묻혀 점차 문학을 잃어가는 상황이 담겨 있다. 미도리는 자신의 실제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생활에서의 이상과 현실의 모순, 그리고 이로 인한 부부 간의 갈등과 육아 문제를 주요 테마로 작품 활동을 한 작가이다. “작품은 그대로 자신의 한탄과 호소이자, 자의식을 지닌 여성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상을 표출시키고 있다”²⁵⁾는 설명처럼 작가 미도리는 자신의 실생활상의 고뇌를 소설로 승화시키고 있는데, 이 작품 역시 미도리의 자전적 소설로 작품에서 사와노(沢野)로 등장하는 남편 가토 아사토리(加藤朝鳥)와의 연애를 거쳐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그 후 결혼생활의 모순과 갈등을 담고 있다.

남편은 ‘수양(修養)’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나 사실 수입을 바라며 부인에게 여기자가 되길 강요한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아닌 아내 히사코(久子)는 “저는 여기자가 되지 않고도 수양의 길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제 나름의 이상도 있으니까요”라고 항변하며 남편과 갈등을 겪는다.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천직’을 추구하고 있는 히사코로서는 여기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남편이 문학과 자립이라는 이상을 입으로만 추구할 뿐인 위선적 인물로 여겨진다.

『소설집』의 시작을 알리는 노가미 야에코의 「교노스케의 졸음(京之助の居睡)」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우치 데의 「노사(老師)」, 두 작품은 모두 전통예도의 세계를 무대로 하여 전자에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도의 길을 고수하는 소년이 그리고 후자에는 예술을 포기해야 하는 소녀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전자의 주인공 교노스케는 노(能)의 와키(脇)역을 전문으로 배우는 소년으로 변성기로 인해 맑았던 소리를 잃게 되어 괴로워하나 “변성기의 괴로움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었던 일”이라며 “잠시니까 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배의 위로처럼 그의 장애는 일시적인 것이다. 반면 후자의 오루이(お類)는 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모친과의 생활을 본인이 꾸려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예능을 버리고 “주판의 세계에 들어설 결심”을 한다.

두 주인공의 젠더 차에 의한 이러한 결말은 『소설집』이 제시하는 주요한 문제의식이며, 또한 천직과 직업에 대한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노사」의 소녀는 자신에게 예술로 성공할 기량이 없다고 판단하여 생계를 위해 수입이 더 좋은 일을 택한다. 원치는 않았으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업을 개척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 『소설집』에 게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25) 井手文子(1983) 『『靑鞆』解説・総目次・索引』 不二出版, p.12

반면 간자키 쓰네의 「타이피스트(タイピスト)」라는 작품은 “일로전쟁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발생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직업여성’의 모순된 의식”²⁶⁾을 내비치고 있어 새로운 면이 있으나 『소설집』에는 실리지 못했다. 대신 간자키 쓰네의 「남의 남자(人の夫)」가 게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에구사 미쓰코는 “여성의 직업의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재”를 담은 「타이피스트」가 아니라 “삼각관계의 애증을 그린 「남의 남자」가 선택되었다는 데 의문과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²⁷⁾

작품의 주인공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로서는 새로운 직업이라 할 수 있는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한 채 화가로 활동하는 지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잘 갖춰진” 모습과 “아가씨도 아니고 여학생도 아닌 직업적인 여자에게 공통하는 일종의 형태에 딱 맞아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긴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기 위해 사무실에 갇혀 오랜 시간 타이프만을 쳐야하는 그녀에게 있어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적 특성만이 드러나는 모습은 ‘자신’이라는 존재감을 잃어버린 상실의 상징과도 같다. 이 외에도 『세이토』의 소설에는 다양한 직업을 지닌 여성들이 등장하나 대부분은 이처럼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성의 교육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스스로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소설에 그려지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의해,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기 전까지의 시간에 한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본인이 원했던 일이라도 해도 이상과는 다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에 긍지나 사명감보다는 오히려 상실과 패배감을 드러내게 된다.²⁸⁾

이처럼 라이초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은 경시하는 반면 문학이나 예술 등의 재능을 살리는 일을 ‘천직’으로 삼아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는데, 『소설집』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직업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소설집』에서 「타이피스트」가 배제된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지식과 사상을 지니게 된 여성들은 차별적 사회구조에 반발하며 자신의 내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할 진정한 자신의 일로 믿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승지향은 이윽고 문학이나 예술이라는 돌파구로 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천직’에 대한 의식은 “메이지 말부터 다이쇼기에 걸친

26) 岩田なつ(1999) 米田佐代子外編 『「青鞥」を学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p.44

27) 앞의 글 23) p.33

28) 박유미(2012. 2) 「일본근대여성의 직업의식 고찰 - 『세이토(青鞥)』1기(1911~12년) 작품을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日本文化學會, p.244 참조

청년들, 『세이토』의 여성들이 빈민한 공통의 문제”²⁹⁾였으며 “이 무렵의 젊은 여성이 문학에 대해 품은 동경의 크기는 필시 지금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³⁰⁾이라는 라이초의 회상처럼 『세이토』 여성들의 지향점도와 다르지 않아 문학과 예술을 이상적으로 여겼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집』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남녀라는 젠더의 차별적인 관계를 표출하는 소설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애결혼이 남녀평등이나 자유의 표현으로 인식되면서 자아확립과 인습타파를 지향하는 여성들은 연애결혼을 이상화했다. 그러나 가미치카 이치의 「한 통의 편지(手紙の一つ)」, 가토 미도리의 「집착」에 묘사된 연애와 결혼은 이러한 이상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한 통의 편지」의 여주인공은 사랑을 절대적이라 믿었기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음에도 남자가 말리자 그 일을 포기했으며,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여자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남자는 점차 그녀 앞에서 폭군의 행태를 드러내고 결혼의 책임은 회피하려 든다. 또한 「집착」의 히사코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상의 실현을 위해 자유결혼을 택했으나 그 결혼이야말로 그녀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함정이 되어 고통을 준다.

남녀관계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지배와 굴종이라는 힘의 관계가 작용하는 장이며, 가정은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여성들을 억압한다. 아내, 어머니, 인간이라는 삼중고야말로 당시의 여성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었으며 이는 여성문학에 있어서도 주요 제재로 새롭게 떠올랐다. 예를 들어 모리 시게의 「죽음의 집(死の家)」이나 고가네이 기미의 「북소리(太鼓の音)」가 가족제도 속에서 하나의 부품으로 소멸되는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가토 가즈코의 「영감(おきな)」에서는 부인과 두 딸의 희생을 바탕으로 홀로 청빈한 유학자인냥 살아가는 가장의 모습을 통해 봉건적 가부장제의 허상을 비판한다.

「북소리」는 이웃집 아이가 치는 장난감 북소리의 변화를 통해, 이웃집 부인과 아이의 죽음, 그리고 재혼과 또 다른 아이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제도 속에서 여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내가 죽자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가정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변함없는 일상을 되풀이한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은 꼭 필요한 존재이나 언제든 다른 여성으로 교체 가능한 소모품적인 가치밖에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집」의 여주인공은 자신을 키워준 유모가 폐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29) 岩田ななつ(2003) 『文学としての『靑鞆』』 不二出版, p.130

30) 平塚 らいてう(1955) 「わたくしの歩いた道」 新評論社 (井手文子(1975) 『『靑鞆』の女たち』 海燕書房, p.127 재인용)

듣고 “오늘내일 하고 있는 유모 역시 시집만 가지 않았다면 폐병 따위는 걸리지 않았을지 모른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은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한다. 병이 들어 쇠약해지자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 돌아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유모를 통해 결혼이 여성에게 가져오는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오가사와라 사다의 「손님(客)」이나 이와노 기요의 「암투(暗闘)」 그리고 간자키 쓰네의 「남의 남자(人の夫)」 등은 모두 한 남성을 사이에 둔 두 여성이라는 삼각관계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손님」과 「암투」는 남편의 전애인과 현재의 부인의 미묘한 심리가, 그리고 「남의 남자」에서는 부인과 함께 있는 애인을 몰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성의 고통이 그려지고 있다. 이들 작품은 여성이 어떠한 입장이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기는 하나 공통되는 것은 남자의 애매한 태도와 책임감 없는 이기적 행동으로 여성들의 갈등과 고통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이들 세 작품은 부인과 애인의 시선을 통해 결혼제도에 대한 의문이나 결혼과 사랑의 불확실성을 그려내고 있다 하겠다.

근대문학에 있어 가부장제를 축으로 하는 가족제도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였다. 그렇기에 『세이토』에 연애나 결혼 그리고 부부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으며 『소설집』의 작품들도 이러한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마치며

『세이토』의 여성들은 글쓰기를 통해 젠더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세이토』의 아이덴티티를 논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평론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설이야말로 당시의 여성들이 무엇을 추구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유용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찾고자 한 여성들, 『세이토』를 발판으로 작가로 성장하고자 했던 수많은 집필자들이야말로 『세이토』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설집』은 『세이토』에 대한 사회의 비난에 맞서 근대의 여성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일련의 작업 속에서 탄생하였다. 그 만큼 작가나

작품 개개의 특성을 뛰어넘어 『세이토』 여성들의 문제의식과 중심사고가 집약되어 있는 특별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설집』이 기존부터 활동하던 유명 작가보다는 신인들의 작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세이토』가 기성작가나 문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바를 소신껏 구현하고자 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내용적으로는 여성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천직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 등 직업에 대한 의식을 담은 작품들과 남녀의 차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연애와 결혼, 가부장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작품들이 많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가족제도의 문제야 말로 여성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였기 때문이다.

여타의 여성잡지가 주로 현모양처를 목표로 하여 주부를 위한 실용적 기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데 반해 『세이토』는 여성의 근대적 각성과 인습의 타파 등을 내세워 실용 잡지와 같은 대중성을 지닐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토』가 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당시의 여성들과 공유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여성들의 고민과 의문 그리고 바람과 요구를 대변하는 『세이토』의 면모를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설집』은 『세이토』가 지닌 이러한 독자적인 가치와 의의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하겠다.

【参考文献】

- 박유미(2009) 『「세이토(靑鞆)」의 여성담론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5
 _____(2012) 「일본근대여성의 직업의식 고찰- 『세이토(靑鞆)」 1기(1911~12년) 작품을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日本文化學會 p.244
 飯田祐子(1997. 12) 「『靑鞆』의中心と周辺」 『名古屋近代文学研究』(通号15) 名古屋近代文学研究会 p.100 p.101
 板垣直子(1955. 2) 「平塚らいてうと靑鞆派の文芸運動」 『明治大正文学研究』通号15
 _____(1968) 「『靑鞆』派の文学運動と婦人運動」 『明治・大正・昭和の女性文学』 桜楓社
 井手文子(1975) 『『靑鞆』의女たち』 海燕書房 p.11 p.12
 _____(1983) 『『靑鞆』解説・総目次・索引』 不二出版 p.127
 今井泰子(1992) 『外編短編 女性文学 近代』 桜楓社 p.51

- 岩田ななつ(1999) 米田佐代子外編 『『青鞥』を学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p.44
_____ (2003) 『文学としての『青鞥』』不二出版 p.130
- 江種満子(1989) 「知としての〈女〉の発見」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編『『青鞥』を読む』
学芸書林 p.18 p.21 p.33
- 草部和子(1963. 9) 「女流作家と婦人運動」『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8(13)
- 子安美知子(1961. 10) 「『青鞥』の成立—平塚らいてうを中心として」『国語と国文学』38(10)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_____ (1964. 6) 「最近の『青鞥』研究」『比較文学研究』通号8 東大比較文学会
- 露口卓也(1999) 「『青鞥』の思考」『文化学年報』49号 同志社大学文化学会 p.361
- 利根川 裕(2003) 『青鞥小説集 第一』復刻板 解説、不二出版 p.4 p.5
- 根岸泰子(2003, 11) 「『青鞥』における『私的領域』の意味」『国語と国文学』80(11) 至文堂
p.79
- 平塚らいてう(1955) 「わたくしの歩いた道」新評論社

要 旨

This paper investigated on what was an identity of 『Seito』 .

When discussing the identity of 『Seito』 , no matter how commonly criticisms are quoted, novels can be the most useful text to understand what women wanted to seek out for the moment. Especially, 『Seito Works of Fiction』 was a collection of special works condensing an awareness and central ideas of modern women only surpassing each work's characteristic. This tendency clearly appear in that 『Works of Fiction』 preferred the works of young writers to those of existing famous ones. It indicate that 『Seito』 didn't mind the evaluation of the existing authors and literary circles and expressed what they pursued according to their own conviction.

Another distinct feature of 『Seito』 is its contents. The main themes of the works were the message that women should have a vocation using their talents, problems on a patriarchy and a romantic relationship and marriage based on discriminating relation between men and women. That's because the most urgent problem faced with women was the family system based on a patriarchy. It also demonstrates the real aspect of 『Seito』 representing the agony, desire, demand, and question of the women in those days.

キーワード： 『Seito』 , 『Seito Works of Fiction vol.1』 , novel, modern, identity, modern women

투 고 일 : 2015. 2. 28
심 사 일 : 2015. 3. 14
계재확정일 : 2015. 4. 4